
족관절에 생긴 활액막성 연골 증증

Synovial Chondromatosis of the Ankle joint

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서진수 · 김지훈 · 김종인

❖ 목적

족관절에 발생한 11예의 활액막성 연골 증증을 경험하여 그 임상 양상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.

❖ 대상 및 방법

2001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족관절에 생긴 활액막성 연골 증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시행한 1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 5명, 여자 6명이었고, 평균 연령은 51.5세(범위: 35~74세)였다. 증상 발생 후 치료까지의 기간은 평균 116.9개월이며, 평균 추시 기간은 35.9개월이었다. 진찰 소견에서 족관절 통증 및 압통 9예, 종창 7예, 잠김 현상 3예, 종물 촉지 1예였다. 수술 전 평가 방법으로는 전례에서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, 컴퓨터단층 촬영 4예, 자기공명영상 촬영 3예, 초음파 1예 시행하였다. 치료로는 5예에서 개방 활액막 제거술, 5예에서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, 1예에서 경거골 유합술을 시행하였다.

❖ 결과

술 후 8예(72.7%)에서 임상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, 술 후 AOFAS score는 평균 73.6점(범위: 56~96)였고,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8예(72.7%)에서 양호 이상의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. 술 후 최종 추시상 재발을 보인 예는 없었다.

❖ 결론

비교적 희귀한 질환인 족관절의 활액막성 연골 증증을 치료하여 비교적 양호한 임상 결과를 얻었으며,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치료를 위해 수술 전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